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6년 5월 20일 오후 네 시,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매 엘리사, 마리아 잔프란카 아트제이 수녀님께서 92의 일기로
선종하셨습니다. 수녀님은 66년 동안 수도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강림을 준비하는 이 때 성부께서는 엘리사 수녀님을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수녀님은 충실한 빠스또렐라로서 축성생활로 진리, 길,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엘리사 수녀님은 1933년 9월 5일 마루뷰(오르스타노)에서 태어나시고 같은 해 9월 16일에 출생지의 몬세라토의 동정 성모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6년 3월 10일 알마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수도회에 입회했으며 1958년 9월 2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수련기를 시작하였으며, 1959년 9월 3일 첫서원을 하였으며 마리아 잔프란카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초기 양성시기부터 수녀님은 신심이 깊고 긍정적인 정신을 지닌 사람, 선하고 침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지닌 사람, 사도직에서 많은 시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서원 후에 카르디날레(카탄자로)에서 유치원 교사로 사목직무를 수행하였고, 1962년에 코데비고의 콘케(파도바)로 이동하였고, 이듬해에 빌라마르자나(로비고)로 파견되었습니다. 1964년 9월 3일에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한 다음 바로 카르보나라 포(만토바)로 파견되어서 공동체 원장을 지냈습니다. 1970년 토디(폴리아) 공동체로 이동하여서, 주로 유치원 교사로 사도직을 수행하였습니다.

1971 년에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면학 시기를 가지셨으며 1974 년부터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모원 공동체에 남아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건강이 약해졌을 때,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큰 인내와 관대함으로 엘리사 수녀님을 돌보아 주시고 가까이에서 지탱이 되어주신 모든 수녀님들과 외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녀님들은 엘리사 수녀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최근의 기억은 수녀님과 만남에서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내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 수난의 신비에 일치하여 봉헌합니다.””

“수녀님은 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아주 훌륭하게 일하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시련을 겪을 때도 수녀님은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양성기를 같이 보냈습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방문하실 때면 우리는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했으며,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 수녀님은 소소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련기 때 제의방을 담당했으며, 우리는 수녀님에게 우리 성당을 꾸미는 것을 즐겁게 배웠습니다. 인자하고, 강하고, 결정력이 있고, 선택에 있어서 명확했으며, 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본당 교리 교육을 행하는 “빠스또렐라”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소를 띄며 선하고 깊이 있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병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삶을 평온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엘리사 수녀님, 수녀님을 성부의 자비에 맡깁니다. 수녀님의 선한 목자에게 대한 충실한 사랑에 대해 성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수도회와 바오로 가족과 모든 교회에 거룩하고 선한 성소자들을 보내주길 전구해 주세요.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장

서울(한국), 2026. 5. 20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사제 기념일